호사다마는 불행의 예고가 아니다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스페인은 월드컵 우승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거리에서는 축포가 터지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는 큰 산불이 번졌다. 한쪽에서는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떠오른다. 좋은 일에는 마가 따른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일이 온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잘될 때일수록 마음을 더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자연스럽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힘들 때보다 잘될 때 방심한다. 건강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풀리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는 마음도 슬며시 올라온다.

주식시장만 봐도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AI 반도체 주가가 오를 때는 모두가 낙관적이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투자하다가 몇 번 수익을 내고 나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다 어느 날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며칠 전까지 "없어서 못 산다"고 하

사람은 힘들 때보다 잘될 때 방심해
이룬 성취는 나뿐 아닌 많은 인연 덕
잘될 때일수록 방심 말고 마음 살펴야

던 사람이 갑자기 "큰일 났다"고 한다. 반도체가 며칠 사이에 불량품이 된 건 아니다. 결국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식 차트만큼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실감 나게 보여주는 것도 드물다. 오르는 것도 계속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뜻이다.

호사다마에서 말하는 '마(魔)'도 꼭 밖에서 찾아오는 불길한 존재만은 아닐 것이다. 일이 잘될 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탐욕과 교만, 집착과 방심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다. 특히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마음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월드컵 우승은 선수 한 명이 만든 것이 아니다. 선수와 감독, 코치와 가족, 팬과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부모와 스승이 있었고, 가족과 동료가 있었으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일이 잘될 때 "내가 잘했다"는 말 뒤에 한마디만 더 붙여보면 어떨까.

"많은 인연 덕분이다."

그 한마디면 마음이 조금 달라진다. 교만이 감사로 바뀐다.

수행이라는 것도 어쩌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닐지 모른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휩쓸리지 않는 마음일 것이다.

호사다마는 불행을 예고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할 때일수록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지혜에 더 가깝다.

시애틀 추장의 편지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밤이면 집 앞 숲에서 쏙독새 소리가 들린다. 새소리를 듣는다는 건 귀가 새소리에 열려 있다는 뜻이다. 귀가 열리면 누군지 궁금해진다. 궁금증을 풀어가다 보면 어느 계절에 어떤 새가 오고 가는지, 새가 활동하는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알게 된다.

어느 날 숲에서 소쩍새 소리를 들었을 때 도감을 찾아 모습을 확인하고 무척 놀랐다. 서정적인 소리와 달리 맹금이었다니.

소쩍새 소리를 듣다 보니 솔부엉이 소리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아마 그 소리들 사이에 쏙독새 소리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존재를 몰랐다. 낮에 숲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쏙독새 사진을 보았고, 쏙독새에 관해 하나씩 알아가다 드디어 숲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됐다.

개구리는 늘 개굴개굴 소리 낸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해엔가 아주 희한한 소리가 들려 녹음해서 찾아보니 산개구리 소리였다. 경칩 무렵이 되면 달력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게 신기했다. 비가 오려나 싶으면 개구리가 합창으로 먼저 알려준다. 고즈넉한 밤에 쏙독새 소리며 개구리 소리가 창 너머로 들리면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이 떠오르곤 한다.

"쏙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 못가에서 개구리들이 나누는 논쟁을 들을 수 없다면 인

AI시대 인공지능 운영에 막대한 전력 要
전력 생산 위한 우주 데이터센터 논의도
우주까지 닿은 인간의 욕망 되돌아봐야

간의 삶에 무엇이 남겠는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가울 따름이다. 숲으로 비가 쏟아지며 빗방울이 나뭇잎과 만나 내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를 잊지 못한다. 욕실에 샤워기가 켜진 줄 알았는데 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세게 쏟아지는 비가 들이칠까 싶어 아주 살짝 창을 열었을 때 마치 거대한 물뿌리개가 숲 위로 물을 뿌리는 듯한 그 소리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처음 들었다 생각했지만 정확히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맞을 것이다.

정부는 AI시대에 필요한 두뇌·신체·심장을 한국이 모두 확보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를 떠받치기 위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최근 구글과 스페이스X 등 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자 데이터센터를 우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데이터센터가 뿜는 열을 우주에서 식힌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주는 누구든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공간일까?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은 '모든 나라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우주 탐사를 할 수 있고 만인의 유익을 위해 실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다. 소위 '던 더스크(Dawn-Dusk)'로 불리는 궤도 안에 있어야만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태양을 마주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궤도를 확보하려 우주에서까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쏙독새가 쏙독 쏙독 내게 묻는다. '우주에서도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끝엔 무엇이 남을까?'

社 說

갈등 넘어 미래 세우는 선거 돼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우려했던 모습도 현실이 되고 있다. 현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사회법 제소가 이어지고 이를 둘러싼 종단 안팎의 공방도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종단의 사법기구와 관계 기관이 절차에 따라 판단할 몫이다. 중요한 것은 선거 국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종단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종헌·종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질서를 꾸준히 정비해 왔다. 선거 역시 그 틀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된다. 종단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그 절차와 규범 속에서 이뤄질 때 공동체의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감정적 대립과 외부 여론전에 치우치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흑색선전 대신 종책 경쟁 이뤄져야
종단 신뢰 회복하는 전환점 되길

다행스러운 것은 종단 안팎에서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은 흑색선전과 금권선거를 배격하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를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수행공동체의 품격에 걸맞은 선거 문화 정착을 당부했고, 포교사단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인신공격을 멈추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경쟁을 호소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정하고 청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하나로 모인다.

이러한 열망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은 상대를 흠집 내기보다 자신이 이끌 종단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종교 인구 감소 대응, 청년 포교 확대, 교구자치 실현, 인공지능 시대 대응 등 한국불교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총무원장 후보들이 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누가 상대의 약점을 더 많이 찾아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종단의 미래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거권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후보들의 수행 이력과 종책, 종단 운영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해야 하며, 종헌·종법 위반 행위에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 한국불교는 국민들로부터 이전보다 높은 호감과 관심을 얻고 있다. '힙불교'로 상징되는 다양한 문화포교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때일수록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의 품격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불신과 갈등만 노출된다면 어렵게 쌓아온 사회적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다. 청정 수행공동체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과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때 이번 선거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8월 1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8월 1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8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